

전남

전남 가공식품 유기인증 전국 최다

유기농 배추김치·뽕이랑 뽕잎차 등 252개 품목

안전식품에 대한 소비자 욕구 적극 대응 주효

전국의 절반이 넘는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전남도가 유기농식품 인증에서도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전남도는 “가공식품산업에서도 전국 최다인 252개 품목에 대해 유기인증을 획득해 전국 최고의 안전 먹을거리 생산지임을 증명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내 유기농식품 인증 품목은 ▲ 순천농협 낭도식품의 ‘유기농 배추김치(순천농협 낭도식품)’ ▲ 유기나라 야채수(좋은영농조합법인) ▲ 뽕이랑 뽕잎차(동의나라) ▲ 유기 달콤한과 채 든든한 아침 시리얼(산들촌) 등 47개업체 252개 품목에 달한다. 이를업체의 매출액 역시 최근 참살이(월

빙) 식문화 열풍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도내 유기농식품 인증이 많은 것은 전남도가 그동안 친환경 농산물의 가공상품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중국 멜라민 파동이후 안전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유기농식품 인증을 적극 지원해온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난해부터 유기농식품 인증수수료와 전문 경영 컨설팅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올해도 31개업체에 1억원을 지원해 일반제품과 차별화했다.

또한 유기농식품을 생산하는 업

체와 인증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유기농식품 인증에 따른 마인드 제고와 업무 연찬을 위해 인증기준 및 절차, 사후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왔다.

지난 16일에는 내년도 인증지원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대상자들에게 유기농식품 인증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박군조 전남도 농산물유통과장은 “그동안 유기농식품업체에 대한 인증 교육과 수수료 지원으로 도내 유기농식품 인증업체가 크게 늘었다”며 “국내 유기농식품 시장이 급 성장하고 있는데 반해 국산원료 사용 비율은 아직까지 미미한 실정이므로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유기농식품 가공·생산시설, 신제품 개발, 인증 수수료 지원 등을 통해 안전식품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욕구에 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



다문화 이주여성들 “김장김치 담아요~”

김장김치를 담그고 있다. 주부교실 회원과 다문화가정 여성들은 1:1 멘토-멘티 관계를 맺고 있다. /장흥군 제공

주부교실 장흥지회(회장 채은아) 회원과 지역 다문화

이주여성들이 지난 15일 장흥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총족시키기 위해 종합적인 준비를 해왔다.

관련료는 성인 1인 2000원이며 순천시민과 내 고장 순천사랑카드(KB은행), 에코 GEO카드(하나은행),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적금통장 소지자는 50% 할인된다.

또 갈래 열차와 생태체험선 이용료는 별도이며, 입장료 수의 일부는 순천만습지 보호지역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사업과 생태계 조사 등의 사업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세계 5대 연안습지’로 손꼽히는 순천만은 지난 2008년 제10차 람사르총회 이후 우리나라 대표 생태관광지 자리잡으면서 남도의 생태와 문화를 체험하는 생태여행의 필수코스가 되고 있으며, 올해만도 300만명에 육박하는 탑방객이 다녀갔다.

/동부취재본부=황운학기자 hwang@

전남교육지원청 평가

함평교육청 ‘최우수’

함평교육지원청(교육장 노양섭)은 최근 전남도교육청이 11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에서 주요 시책과 교원역량 강화 부문 ‘최우수’ 지원청으로 선정됐다.

또한 교육복지 및 교육지원 체제에서도 ‘우수’ 지원청으로 평가받았다.

도교육청은 교육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책무성 강화, 주요시책에 대한 목표 달성을 통해 전남교육의 행복한 변화를 위해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지난 7월 시행된 초등학교 6학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함평군 초등학교가 1위를 차지했으며, 영어 전국 7위·수학 8위로 전국 상위권의 성과를 기록한 바 있다.

노양섭 교육장은 “앞으로도 교육지원청 제반분야 사업에 있어서 행복한 함평교육, 전남교육의 미래를 위해 힘껏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황운학기자 hwang@

여수 친환경농업인연합 창립

유통·판매 개선 경쟁력 강화



여수지역에서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들이 모임체를 구성하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나섰다.

여수시 친환경농업인 연합회(회장 박용현)는 지난 15일 여수농업기술센터에서 김충석 여수시장을 비롯해 김영규 의회의장, 지역 협력장, 농업관련 단체장, 회원 등 2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가졌다.

연합회는 앞으로 유통·판매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경쟁력을 높이고, 자체체제를 유통망 지부별로 사전 계획하여 재배함으로써 연중 필요한 품목을 생산하는 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여수시 농업기술센터 김유근 소장은 “연합회와 긴밀한 협조체계로 친환경 농업정책의 극대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지역은 2100여 농가가 911ha에서 돌산갓 등 47개 품목을 친환경 재배해 연중 1만t를 생산, 학교급식과 공공장 등에 출하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정현기자 chkim@

영광군 기업유치 날개 달았다

1년새 37개 기업 4300억… 6500명 고용효과

영광군이 지난 1년간 37개 기업을 유치하는 등 기업인들의 투자를 줄이고 있다.

16일 영광군에 따르면 올 한해만 풍력설비 17개, 농산물 및 식품업체 11개 등 총 37개 기업과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한국바이오텍은 영광군 군남면 설레미에 2만㎡ 부지에 80억 원을 투자해 흑마늘과 대왕암말을 가공 공장을 짓고 관련 식품을 일본 등에 수출한다.

새뜰원은 45억 원을 투자해 묘향면 일원에 5천㎡ 규모로 환경, 미백, 항산화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알려진 보리새싹 음료와 농축액·환·분말 가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다.

비제이는 백수를 천마리 1만1000

m² 부지에 34억 원을 들여 고유가 시대에 대비한 저렴한 친환경 에너지 원인 펠릿 및 보일러 등을 생산하는 공장을 지을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에는 중국 현지 투자 유치 활동을 통해 중국 2개 기업과 4천만 달러 상당의 투자 유치를 성사시키기도 했다.

영광군은 기업유치를 위해 전국 유일의 ‘전기요금 특별 보조금’은 물론 입지 보조금(분양가 70% 범위) 등으로 유기농식품업체에 지원해온 것을 계획이다.

새뜰원은 45억 원을 투자해 묘향면 일원에 5천㎡ 규모로 환경, 미백, 항산화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알려진 보리새싹 음료와 농축액·환·분말 가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다.

비제이는 백수를 천마리 1만1000

m² 부지에 34억 원을 들여 고유가 시대에 대비한 저렴한 친환경 에너지 원인 펠릿 및 보일러 등을 생산하는 공장을 지을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에는 중국 현지 투자 유치 활동을 통해 중국 2개 기업과 4천만 달러 상당의 투자 유치를 성사시키기도 했다.

영광군은 기업유치를 위해 전국 유일의 ‘전기요금 특별 보조금’은 물론 입지 보조금(분양가 70% 범위) 등으로 유기농식품업체에 지원해온 것을 계획이다.

새뜰원은 45억 원을 투자해 묘향면 일원에 5천㎡ 규모로 환경, 미백, 항산화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알려진 보리새싹 음료와 농축액·환·분말 가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다.

비제이는 백수를 천마리 1만1000

m² 부지에 34억 원을 들여 고유가 시대에 대비한 저렴한 친환경 에너지 원인 펠릿 및 보일러 등을 생산하는 공장을 지을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에는 중국 현지 투자 유치 활동을 통해 중국 2개 기업과 4천만 달러 상당의 투자 유치를 성사시키기도 했다.

영광군은 기업유치를 위해 전국 유일의 ‘전기요금 특별 보조금’은 물론 입지 보조금(분양가 70% 범위) 등으로 유기농식품업체에 지원해온 것을 계획이다.

새뜰원은 45억 원을 투자해 묘향면 일원에 5천㎡ 규모로 환경, 미백, 항산화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알려진 보리새싹 음료와 농축액·환·분말 가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다.

비제이는 백수를 천마리 1만1000

m² 부지에 34억 원을 들여 고유가 시대에 대비한 저렴한 친환경 에너지 원인 펠릿 및 보일러 등을 생산하는 공장을 지을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에는 중국 현지 투자 유치 활동을 통해 중국 2개 기업과 4천만 달러 상당의 투자 유치를 성사시키기도 했다.

영광군은 기업유치를 위해 전국 유일의 ‘전기요금 특별 보조금’은 물론 입지 보조금(분양가 70% 범위) 등으로 유기농식품업체에 지원해온 것을 계획이다.

새뜰원은 45억 원을 투자해 묘향면 일원에 5천㎡ 규모로 환경, 미백, 항산화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알려진 보리새싹 음료와 농축액·환·분말 가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다.

비제이는 백수를 천마리 1만1000

m² 부지에 34억 원을 들여 고유가 시대에 대비한 저렴한 친환경 에너지 원인 펠릿 및 보일러 등을 생산하는 공장을 지을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에는 중국 현지 투자 유치 활동을 통해 중국 2개 기업과 4천만 달러 상당의 투자 유치를 성사시키기도 했다.

영광군은 기업유치를 위해 전국 유일의 ‘전기요금 특별 보조금’은 물론 입지 보조금(분양가 70% 범위) 등으로 유기농식품업체에 지원해온 것을 계획이다.

새뜰원은 45억 원을 투자해 묘향면 일원에 5천㎡ 규모로 환경, 미백, 항산화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알려진 보리새싹 음료와 농축액·환·분말 가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다.

비제이는 백수를 천마리 1만1000

m² 부지에 34억 원을 들여 고유가 시대에 대비한 저렴한 친환경 에너지 원인 펠릿 및 보일러 등을 생산하는 공장을 지을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에는 중국 현지 투자 유치 활동을 통해 중국 2개 기업과 4천만 달러 상당의 투자 유치를 성사시키기도 했다.

영광군은 기업유치를 위해 전국 유일의 ‘전기요금 특별 보조금’은 물론 입지 보조금(분양가 70% 범위) 등으로 유기농식품업체에 지원해온 것을 계획이다.

새뜰원은 45억 원을 투자해 묘향면 일원에 5천㎡ 규모로 환경, 미백, 항산화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알려진 보리새싹 음료와 농축액·환·분말 가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다.

비제이는 백수를 천마리 1만1000

m² 부지에 34억 원을 들여 고유가 시대에 대비한 저렴한 친환경 에너지 원인 펠릿 및 보일러 등을 생산하는 공장을 지을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에는 중국 현지 투자 유치 활동을 통해 중국 2개 기업과 4천만 달러 상당의 투자 유치를 성사시키기도 했다.

영광군은 기업유치를 위해 전국 유일의 ‘전기요금 특별 보조금’은 물론 입지 보조금(분양가 70% 범위) 등으로 유기농식품업체에 지원해온 것을 계획이다.

새뜰원은 45억 원을 투자해 묘향면 일원에 5천㎡ 규모로 환경, 미백, 항산화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알려진 보리새싹 음료와 농축액·환·분말 가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다.

비제이는 백수를 천마리 1만1000

m² 부지에 34억 원을 들여 고유가 시대에 대비한 저렴한 친환경 에너지 원인 펠릿 및 보일러 등을 생산하는 공장을 지을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에는 중국 현지 투자 유치 활동을 통해 중국 2개 기업과 4천만 달러 상당의 투자 유치를 성사시키기도 했다.

영광군은 기업유치를 위해 전국 유일의 ‘전기요금 특별 보조금’은 물론 입지 보조금(분양가 70% 범위) 등으로 유기농식품업체에 지원해온 것을 계획이다.

새뜰원은 45억 원을 투자해 묘향면 일원에 5천㎡ 규모로 환경, 미백, 항산화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알려진 보리새싹 음료와 농축액·환·분말 가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다.

비제이는 백수를 천마리 1만1000

m² 부지에 34억 원을 들여 고유가 시대에 대비한 저렴한 친환경 에너지 원인 펠릿 및 보일러 등을 생산하는 공장을 지을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에는 중국 현지 투자 유치 활동을 통해 중국 2개 기업과 4천만 달러 상당의 투자 유치를 성사시키기도 했다.

영광군은 기업유치를 위해 전국 유일의 ‘전기요금 특별 보조금’은 물론 입지 보조금(분양가 70% 범위) 등으로 유기농식품업체에 지원해온 것을 계획이다.

새뜰원은 45억 원을 투자해 묘향면 일원에 5천㎡ 규모로 환경, 미백, 항산화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알려진 보리새싹 음료와 농축액·환·분말 가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다.

비제이는 백수를 천마리 1만1000